

2025.09~2026.02 | 빅카인즈 이슈 분석

북극항로 이슈의 정책 의제화와 실행 논의

빅카인즈 '북극항로' 관련 뉴스 데이터를 활용해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의 보도량 변화, 피크 시점, 핵심 연관어와 4대 이슈 클러스터를 정리했습니다. 정치성 기사는 별도 제외하지 않고, 네트워크 시각화에서만 인물·정당·사건성 노이즈 키워드를 제거했습니다.

1,778건
최종 분석대상

2025.09.01~
2026.02.28
분석 기간

429건
최고 월간 보도량 · 2025년 09월

86건
최대 피크 · 2025.12.23

핵심 언론보도 요약

최대 피크
12월 23일 : 86건
해수부 부산 개청식과 2026년 시범운항 발표 집중

2차 피크
1월 6일 : 41건
부산-앵커리지 협력과 러시아 협의 이슈 확산

사건 확산
12월 11일 : 37건
부산청사 업무 시작, 영일만항 특별 세션

초기 형성
9월 11일 : 35건
해수부 부산 이전 완료 계획, 북극항로 TF 부각

북극항로 이슈는 해안수도·해수부 이전 담론에서 출발해 시범운항, 국제협력, 기관 대응체계로 이어지며 정책 의제에서 실행 의제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였다.

연관어 워드클라우드

지역산업 로테르담 BPA 부산 KMI 해운협회
포럼 영일만항 북극항로 앵커리지
영일만항 극지연구소 친환경항만 국제협력
특별법 시범운항 해양수도
그린란드 HMM 러시아

1. 언론보도량 추이



분석기간 전체에서 북극항로 관련 언론보도는 2025년 12월 23일(86건)에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해수부 부산 개청식과 2026년 시범운항 발표, 해양수도 부산 이슈가 맞물리며 보도량이 급증했다. 이후 2026년 1월 6일에는 부산-앵커리지 협력과 러시아 협의, 부산-로테르담 시범운항 논의가 이어지며 두 번째 피크가 형성되었다.

해석

분석기간 전체에서 북극항로 관련 언론보도는 2025년 12월 23일(86건)에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이후 2026년 1월 6일(41건), 2025년 12월 11일(37건), 2025년 9월 11일(35건) 등 주요 시점에서 언급량이 집중되는 흐름을 보였다. 특히 12월 하순은 해수부 부산 개청식과 북극항로 시범운항 발표 이슈가 맞물리며 언급량이 급증한 시기였고, 2026년 1월 초에는 해수부의 운항 추진 목표와 국제협력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두 번째 피크가 형성되었다.

2. 피크 시점의 증가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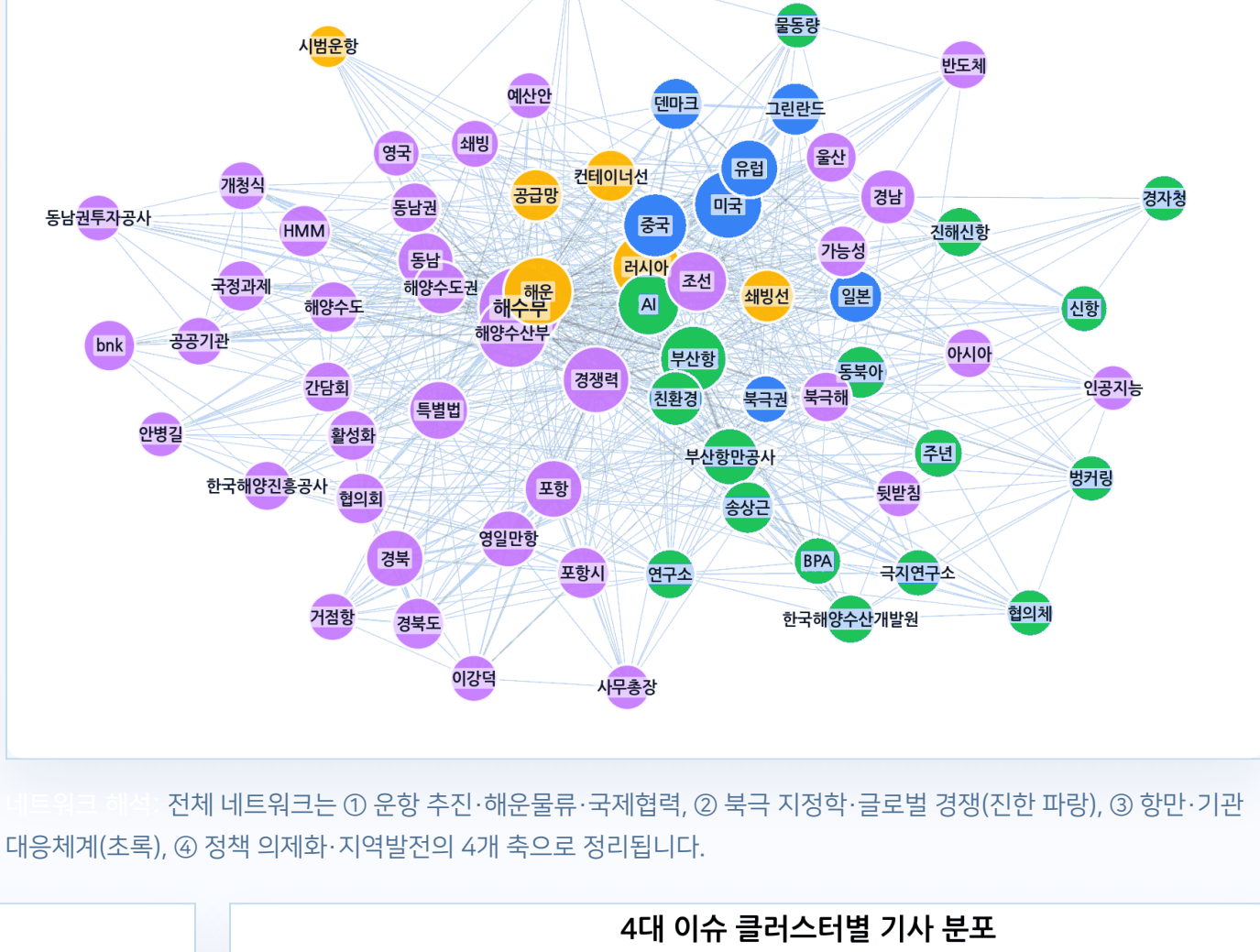
STEP 1	STEP 2	STEP 3	STEP 4
2025년 9월 해양수도권·해수부 부산 이전·해운협회 TF·HMM·영일만항 논의가 동시에 등장	2025년 11~12월 덴마크-IMO 국제공조, 영일만항 포럼, 해수부 부산 개청식과 2026년 시범운항 발표	2026년 1월 부산-앵커리지 협력, 러시아 협의, 부산-로테르담 시범운항, 그린란드 지정학 이슈 확산	2026년 2월 KMI·BPA·극지연구소·KRISO 협의체, 친환경 북극항로 포럼, 특별법 지역산업 육성

날짜	기사 수	주요 이슈
2025.12.23	86건	해수부 부산 개청식, 해수부 이전·해양수도 부산, 2026년 시범운항 발표, 그린란드 이슈 동시 부각
2026.01.06	41건	부산-앵커리지 협력, 9월 북극항로 운항 목표, 러시아 협의, 부산-로테르담 시범운항
2025.12.11	37건	해수부 장관 사퇴, 부산청사 업무 시작, 영일만항 특별 세션, BPA 북극경제이사회 논의
2025.09.11	35건	해수부 부산 이전 완료 계획, 북극항로 TF 신설·해운협회 기금 조성, HMM·해운선사 이슈
2025.09.30	33건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극항로 협력 논의, 한반도 비핵화·부산 회담 보도 확산
2025.09.23	31건	중국의 유럽 연결 북극항로 개통, 해운·항만·방산 AX 투자, 대통령 명칭 신설 보도 혼재
2025.11.25	29건	덴마크·영국 방문, IMO 국제공조, 영일만항 특화전략 포럼, 친해신항·해양물류리터 논의
2026.01.07	29건	미국·그린란드 지정학 이슈, 부산-알래스카 협력, 북극권 자원·안보 관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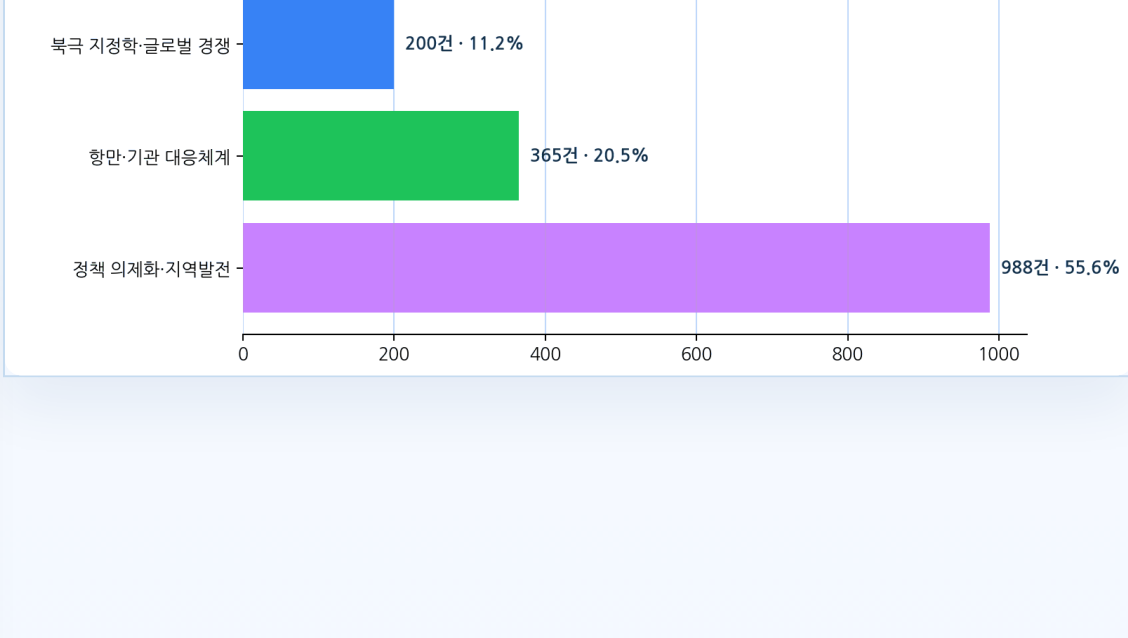
3. 핵심 연관어와 네트워크



※ 정치성 기사는 제외하지 않았으나, 네트워크와 연관어 산출에서는 후보·정당·인물·사건성 노이즈 키워드를 제외했습니다.



전체 네트워크는 ① 운항 추진·해운물류·국제협력, ② 북극 지정학·글로벌 경쟁(친한 파랑), ③ 항만·기관 대응체계(초록), ④ 정책 의제화·지역발전의 4개 축으로 정리됩니다.



4. 4대 클러스터별 이슈 구조와 관련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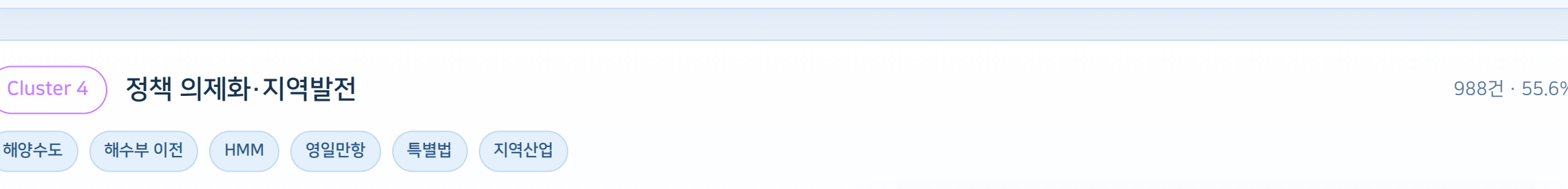
- 9월에는 해운협회 TF·기금 조성, 12월에는 부산-로테르담 시범운항 발표, 1월에는 러시아 협의와 앵커리지 협력이 집중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 북극항로가 단순한 장기 구상이 아니라 시범운항·국제협력·선사 대응을 통한 실행 의제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 러시아 협력과 북미 북극권 거점 확보가 동시에 언급되며 실제 운항 가능성과 리스크가 함께 부각되었습니다.



- 그린란드, 미국, 덴마크, 중국, 유럽 등 북극권을 둘러싼 자원·안보·외교 이슈가 북극항로 보도와 결합되었습니다.
- 2025년 9월의 북극권 패권 보도, 12월의 그린란드 갈등, 2026년 1월의 미국·그린란드 이슈가 보도량을 끌어올렸습니다.
- 북극항로는 물류비 절감 이슈를 넘어 국제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의 민감한 지정학적 변수로 다뤄졌습니다.



- 부산항만공사, KMI, 극지연구소, KRISO 등 전문기관이 북극항로 협의체·포럼·정책 간담회를 통해 대응체계를 구체화했습니다.
- 부산항·친해신항·친환경 항만·빙커링·허브항 전략이 연결되며 항만 인프라 중심의 실무 논의가 강화되었습니다.
- 2026년 2월에는 업무협약체와 친환경 북극항로 포럼 보도가 집중되며 정책 실행 기반이 부각되었습니다.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클러스터로, 해수부 부산 이전, 해양수도권, HMM, 영일만항, 특별법, 지역산업 육성이 북극항로와 결합되었습니다.
- 2025년 9월부터 북극항로는 부산 중심 해양수도권 전략의 핵심 의제로 제시되었고, 12월 해수부 부산 개청식에서 언급량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정치·공약성 보도도 포함되지만, 이는 북극항로가 지역발전·균형발전·산업정책 의제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5. 종합 해석 및 해양수산 시사점

- 핵심 요약**
 - 기간을 2025년 9월까지 확장하면, 북극항로 이슈는 2026년 1월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2025년 9월부터 해수부 부산 이전, 해양수도권, 해운협회 TF, HMM, 영일만항과 결합해 정책 의제로 형성된 흐름이 확인됩니다.
 - 가장 큰 피크는 2025년 12월 23일로, 해수부 부산 개청식과 해양수도 부산, 2026년 시범운항 발표, 그린란드 지정학 이슈가 동시에 보도되며 언급량이 급증했습니다.
 - 2026년 1월 이후에는 부산-앵커리지 협력, 러시아 협의, 부산-로테르담 시범운항, KMI·BPA·극지연구소·KRISO 협의체, 친환경 포럼 등 실행·기관협력 성격의 보도가 강화되었습니다.
 - 해양수산 관점에서는 북극항로를 해양수도·항만경제력 당면제안 무기보다, 러시아·그린란드 등 지정학 리스크, 실제 운항 가능성, 친환경 항만·빙커링, 전문기관 협력체계, 지역항만 간 역할 분담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분석 기준**
 - 자료: 빅카인즈 뉴스 검색 결과 파일
 - 기간: 2025년 9월 1일~2026년 2월 28일
 - 분석대상: 전체 1,778건 중 분석제외 표시가 없는 기사 1,778건
 - 정치성 기사 필터링: 미적용. 정치·공약성 보도는 북극항로가 정책 의제로 확산되는 과정의 일부로 포함하여 해석
 - 키워드/네트워크: 빅카인즈 특성주출 키워드 기반. 검색어 '북극항로'와 일반 불용어, 인물·정당·사건성 노이즈 키워드는 네트워크·상위 연관어 산출에서 제외
 - 클러스터: 기사 제목·특성주출 키워드 기반 규칙 분류, 클러스터별 미니 네트워크는 해당 클러스터 핵심 노드만 표시

- 분석 방법**
 - ① 보도량 추이 분석: 기사 일자를 기준으로 일별·주별·월별 기사 수를 집계하고, 특정 시점의 급증 여부를 확인하였다. 피크 일자는 단순 수순 아니라 해당일제의 제목·분류 키워드를 함께 검토하여 요인을 해석하였다.
 - ② 핵심 연관어 분석: 빅카인즈의 특성주출 키워드를 활용해 빈도와 동시출현 관계를 계산하였다. 검색어 자체인 '북극항로'와 조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반 불용어·인물·정당·사건성 노이즈 키워드는 네트워크 산출에서 제외하였다.
 - ③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동일 기사 안에서 함께 등장한 주요 키워드를 연결해 키워드 간 관계를 구성하였다. 노드 크기는 출현 빈도, 선 굵기는 동시출현 정도를 반영하며, 색상별 네트워크 구조상 가까운 키워드 집단을 나타낸다.
 - ④ 이슈 클러스터링: 네트워크의 연결 구조와 주요 키워드 조합을 바탕으로 세부 이슈군을 묶고, 최종적으로 4개 대분류 클러스터로 재구성하였다. 클러스터별 설명에서는 해당 클러스터에 포함된 동일 색상 네트워크만 제시하였다.
 - ⑤ 대표 기사 선정: 각 클러스터의 핵심 키워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기사 중 보도 시점, 제목의 설명력, 중복 여부, 언론사 다양성을 고려해 대표 기사 링크를 선별하였다.
 - ⑥ 해양수산 시사점 도출: 도출된 키워드와 클러스터를 해운·항만·물류·조선·극지 협력·지역경제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북극항로가 해양수산 분야에서 어떤 정책 의제로 확산되는지 정리하였다.

본 분석은 뉴스 보도에 나타난 언급량과 키워드 관계를 기반으로 한 언론 프레임 분석이다. 따라서 실제 정책 추진 단계 사업 성과를 직접 측정한 것은 아니며, 특정 기간 동안 북극항로가 어떤 이슈와 결합해 보도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